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조지윤*

1. 들어가는 말

존대법이 있는 언어의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존대법 번역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에는 존대법과 같은 문법 형태소나 구조가 없으나 우리말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언어에는 존대법이 있기 때문이다.¹⁾ 성경이 적절하지 않은 존대법으로 번역되면, 그 함축적 의미가 잘못 전달될 뿐 아니라 그 문체가 파괴되고 문장이 비문이 되어버린다.²⁾ 그러므로 많은 성경 번역자들은 존대법 번역에 관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왔고,³⁾ 특히 존대법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 문장도 구사할 수 없는 아시아 지역의 성경 번역자들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이 문제를 연구해왔다.⁴⁾ 그러나 대부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연구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신약학.

- 1) 아시아 지역에서 존대법이 있는 언어는 우리말 및 발리어, 벵골어, 미얀마어, 힌디어, 일본어, 자바어, 네팔어, 티벳어, 태국어, 통간어 등이다(참조 Ji-Youn Cho, "Politeness and Korean Addressee Honorifics in Jesus' Reply, Ἐγώ εἰμι, καὶ ὄψεσθε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 *The Bible Translator* 59:1 [2008], 26-38).
- 2) Young-Jin Min & Ji-Youn Cho, "Korean Translation of the Greek Personal Pronoun σου in the Lord's Prayer", 「성경원문연구」 17 (2005), 133.
- 3) J. de Waard and 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27; W. A. Smalley, *Translation as Mission*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1), 150; H. A. Hatton, "Translation of Pronouns: A Thai Example", *The Bible Translator* 24:2 (1973), 222-234.; L. R. Ross, "Mark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Today's Spanish Version'", *The Bible Translator* 44:2 (1993), 217-231; D. H. Soesilo, "Sir, Teacher, Master, Lord", *The Bible Translator* 47:3 (1996), 335-340; P. Ellingworth, "'You Can Say You to Him': T- and V- forms in common language translations of the New Testament", *The Bible Translator* 53:1 (2002), 143-153; G. S. Shae, "The Portrait of Jesus in the Burmese Gospels", *The Bible Translator* 53:2 [2002], 202-210).
- 4)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는 1963년에 발리어, 미얀마어, 통간어, 일본어, 중국어, 힌디어, 벵골어 등을 연구하는 "존대법 번역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그때 발표된 원고는 1963년의 *The Bible Translator* 158-197에 실려 있다. 또 1998년부터는 성경 본문을 존대법이 있는 언어로 옮기는 연구를 목적으로 "존대법 연구 위원회"(The Honorifics Committee)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 합류한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의 민영진, 네팔의 체트리(C. Chhetri), 인도네시아의 프라사드(GDV Prasad), 스리랑카의 수브라마니(N. Subramani), 인도의 낙(P. Nag), 말레이

분의 연구가 각 언어의 존대법 현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 요소들이나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적절한 존대법 번역을 위하여 기존의 성경 번역 접근법인 직역, 역동적 동등성, 기능 동등성, 문학 기능 동등성, 스키포스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존대법 번역을 위한 번역 요소들과 이론적 틀을 제안할 것이다.

2. 성경 번역 접근법과 존대법 번역

2.1. 직역과 존대법 번역

다양한 번역 이론들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역’과 ‘자유역’이 전통적인 번역 연구의 주류였다.⁵⁾ 제롬(Jerome, AD 395)의 “문자 대 문자, 의미 대 의미, 자유역”의 세 가지 분류법은 중세 시대와 초기 현대 시대까지 기준이 되었고, 이 분류법은 1680년 존 드라이든(John Dryden)에 의해 “축어역, 의역, 모방”으로 재분류되었다.⁶⁾ 이후 1970년대 존 브리크만(John Beekman)과 존 카로우(John Callow)는 “극단적 자유역, 극단적 직역, 수정된 직역, 관용적 번역”으로 번역 양식을 분류하였고,⁷⁾ 1980년대 밀드레드 랄슨(Mildred L. Larson)은 “형식에 근거한 것 대 ‘의미에 근거한 것’을 제안하였다.⁸⁾ 이렇게 번역학자들이 ‘직역’과 ‘자유역’이라는 두 가지 극단에서 다양한 용어로 번역 접근 방법을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번역 접근 방법은 직역이라는 것이 전통적

시아의 유(S. Y. Yu)가 성경 본문을 존대법이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2003년에는 3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워크숍에서 “공손 전략과 번역”(Politeness Strategy and Translation)이라는 주제를 분과 주제로 삼아서 번역 자문위원들과 번역자들이 자신들 언어의 존대법 번역 문제를 발표하였다.

- 5) B. Hatim,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Edinburgh Gate: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xiii.
- 6) 로빈슨(D. Robinson)은 드라이든의 축어역과 모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해야만 하는 두 가지 극단’이고, 의역은 ‘이도저도 아닌 것을 의미한다’. 번역의 양식은 두 가지 극단의 위험을 피하고 원천(축어역)과 대상 본문의 유창함(모방)의 가치를 취하는 것이다”(D. Robinson, “The Skopos Theory”, M.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8], 166).
- 7) J. Beekman and J.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ers, 1974), 21.
- 8) M. L. Larson, *Meaning-based Translation: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인 주장이었다.

이러한 직역에 대한 개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나이다(E. A. Nida)가 직역을 형식 동등성(formal equivalence)으로 정의하면서부터이다. 이후에 나이다는 직역을 해도 원천 본문(source text)과 대상 본문(target text)이 동등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식 동등성을 형식 일치(formal correspondence)로 재정의하였다.⁹⁾ 나이다에 의하면, 형식 일치는 가능한한 원천 본문의 형식과 단어, 구문의 일치를 추구한다.¹⁰⁾

그러므로 직역은 존대법 번역을 위한 적절한 틀이 될 수 없다. 원천 본문에는 존대법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소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원천어를 대상으로 그대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존대법 번역을 하는 번역자는 원천어의 사전적 문법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존대법을 선택할 수 없다. 만약 번역자가 직역을 한다고 하면서 확실적인 등급(level)의 존대법을 선택한다면 원문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왜곡되게 될 것이고, 대상 본문이 어색하고 밋밋하게 될 뿐 아니라, 원천 본문의 생동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많은 현대 번역 이론가들은 형식 일치와 역동적 동등성이 양단의 끝에 있고, 모든 번역들은 이 연속체(spectrum)를 따라서 흩어져 있다고 주장한다.¹¹⁾ 그러나 나이다가 주장한 대로, 형식 일치의 장점은 전혀 없으며, 존대법이 없는 원천 언어를 존대법이 있는 대상 언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직역은 적절한 번역 방법이 될 수 없다.

2.2.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과 존대법 번역

1940년대 이후 나이다는 언어학과 문화인류학, 의사소통 이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번역 이론들과 접근법들을 발전시켰다. 나이다는 직역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60년대에 세운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이 ‘자유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정짓는다.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에 따르면 번역은 의미와 문체에 있어서 원천 언어의 메시지와 가장 가깝고 자연스럽게 동등한 대상 언어를 창출하는 것이다.¹²⁾

9) 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165-166, 171-176.

10) E. A. Nida and C.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rill: Leiden, 1969), 201.

11) M. Watt, “Redefining ‘Dynamic Equivalence’”, *Notes on Translation* 10:1 (1996), 16; G. J. C. Jordaan, “Problems i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Functional Equivalence Approach”, J. A. Naudé & C. H. J.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Bloemfontein: The University of the Orange Free State, 2002), 20.

나이다의 틀에 따르면, 대상 언어에서 표현의 자연스러움은 본질적으로 적절함과 관련이 있다. “(1) 단어 부류들(word classes), (2) 문법적 분류들(grammatical categories), (3) 의미론적 부류들(semantic classes), (4) 담화 유형들(discourse types), (5) 문화적 맥락(cultural context)이다.”¹³⁾ 자연스러움은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특히, 나이다가 제시하는 담화 유형들과 문화적 맥락은, 원천 본문의 화용적(pragmatic) 분석을 위한 기준들이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기대(cultural expectation)와 연결이 된다.

또한 1970년대 나이다와 태보가 주창한,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의 세 가지 과정인 분석(analysis), 전환(transfer), 재구성(reconstruction)은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할 때 부분적으로 유용하다.¹⁴⁾ 분석은 메시지의 문법적이고 의미론적인 측면을 다룬다. 이 단계에서, 나이다와 태보는 언어의 모든 차원들이 조합된 의미를 갖는다고 제안한다. “(1) 구두점, (2) 단어들, 즉 단어들과 관용어들을 포함하는 의미론적인 단위들, (3) 담화들, (4) 메시지의 주제들”이다.¹⁵⁾ 이러한 분류는 원천 본문에서 공손의 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담화와 메시지의 주제 분석은 화용론적 분석의 기준들로서 대화문에 있어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기대를 분석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이 요소는 대화자들 간의 대인관계의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변수들 또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하기 위한 틀(framework)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분석이 원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전환은 원천 본문의 의미를 대상 본문에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나이다와 태보에 의하면, 이것은 번역자가 원천 본문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천 언어의 형식을 모방함으로써 “단어들, 관용어들, 문체적 기재들 뿐 아니라 문법적 형식들”을 빌리는 단계이다.¹⁶⁾ 원천 본문과 대상 본문 간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번역자는 의미의 전환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원천 본문의 의미론적 측면뿐 아니라 발화(utterance)의 해석과 해설을 위한 화용론적 접근이 존대법 변

12) E. A. Nida and C.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12. 역동적 동등성 번역의 목적은 현대 독자들에게 본래 본문이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S. J. Joubert, “No Culture Shock? Addressing the Achilles Heel of Modern Bible Translations”, Naudé &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31). “가장 자연스럽게 옮긴다는 것은 (1) 전반적으로 수용어와 문화를, (2) 구체적인 메시지의 문맥을, (3) 수용어 독자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167).

13) 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168.

14) E. A. Nida and C.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33.

15) *Ibid.*, 96.

16) *Ibid.*, 100-101.

역을 위하여 강조된다.

번역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전환된 의미의 ‘재구성’이다. 메시지를 재구성하면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바람직한 언어나 문체의 다양성, (2) 이렇게 다양한 문체들의 본질적인 구성 요인들과 특징들, (3) 바람직한 유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들”이다.¹⁷⁾ 전환된 의미를 적절하게 재구성하기 위하여, 나이다와 태보는 사회적인 요인들을 제안한다: “(1) 나이, (2) 성, (3) 교육 수준, (4) 직업, (5) 사회적 계급이나 카스트, (6) 종교”이다.¹⁸⁾ 이러한 요인들은 대상 언어의 존대법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유사하지만 이 요인들이 번역하는 동안에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으로 이 외의 다른 번역 요소들도 필요하다.

나이다와 태보는 원천(source), 메시지(message), 수용자(receptor)로 구성된 번역 과정 모델¹⁹⁾을 제안하였는데, 이 도관(conduit) 모델 또한 존대법으로 번역하기 위한 틀을 세우는 데 부분적으로 통찰력을 준다. 원천 본문이 존대법이 없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 본문이 존대법이 있는 언어로 구성되었을 때, 원천어와 수용어 간의 언어 체계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나이다와 태보의 모델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모델은 직역보다 번역자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 수용자가 최종으로 받게 되는 메시지가 원천 본문과 독자들 간의 역사적-문화적 차이점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존대법 번역을 위한 접근법으로 적용할 때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나이다와 태보가 제안하는 번역 요소들인 원천, 메시지, 수용자는 존대법이 없는 언어를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최종 독자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없이 번역자 홀로 존대법 번역 결정의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천 본문에 존대법이 없기 때문에, 동등성 이론이 원천 본문을 이론적 시작점을 보는 것과는 맞지 않다.

나이다와 태보는 번역문에서 어색한 표현들을 피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상어 번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²⁰⁾ 그리고 문체의 특징을 설명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이론적 틀/framework)이나 기준들(criteria)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²¹⁾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요구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 독자들의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가 번역 과정에서 원천 본문의 분석보다 선

17) Ibid., 120.

18) Ibid., 127.

19) Ibid., 22.

20) 참조, W. A. Smalley, *Translation as Mission*, 156.

21) 참조, B. Hatim,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24.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동등성 접근 방법은 존대법 없는 언어를 존대법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틀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나이다와 태보가 인식하고 채택한 사회학적 요인들과 사회언어학적인 접근법은 존대법의 선택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원천 본문 분석이 존대법 번역의 이론적 시작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종 독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원천 본문에서 대화문의 공손 화법을 평가하고 주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2.3. 기능 동등성 접근법과 존대법 번역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이 의미론에 영향을 받았다면, 얀 드 바(J. de Waard)와 나이다가 역동적 동등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개한 기능 동등성은 사회기호학(sociosemiotics)으로부터 중요한 통찰력을 얻었다.²²⁾ 이 접근법이 소개된 이후 성경 번역 기관들과 번역 선교사들은 이 접근법을 많은 성경 번역 작업에 적용하였다.²³⁾

존대법 번역을 위한 틀을 세우기 위하여 이 접근법을 살펴보면, 이 접근법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의사소통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용하다.²⁴⁾ 번역자들의 언어학적이고 문학적인 이해를 좀 더 요구하는 기능 동등성에서, 번역 과정의 시작점은 번역자의 인식이다. 번역자는 원천 본문의 언어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구조와 그 기능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존대법 번역을 위해서도, 번역자는 원천 본문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원천 본문의 수사학적인 구조를 관찰하는 것은 존대법 번역에 앞서 원천 본문의 담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드 바와 나이다는 원천어와 대상어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²⁵⁾ 이 틀에서 번역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원천 본문과 대상 본문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강조는 존대법이 원천 본문에 있지 않고 대상 본문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이 된다. 또한 드 바와 나이다는 공식적인 차원과 비공식적인 차원으로 언어 등급을 인식해왔다. “예전적이고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고 평상적이고 친밀한 것”으로 적어도 다섯 가지 중요한 등급들이다.²⁶⁾ 이러한 언어 등급은 존대법의

22) J. de Waard and 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vii-viii, 36.

23) Simon Crisp, “Challenges for Bible Translation Today”, 『성경원문연구』 24 (2009), 201-202.

24) 참조, Statham, “Dynamic Equivalence and Functional Equivalence”, 106.

25) J. de Waard and 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42.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과 대화 상황의 공식성 여부와 관련이 있다. 언어 등급은 본문을 이해하는 청중의 전달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²⁷⁾ 이것은 존대법을 사용하는 말하는 이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이처럼 드 바와 나이다는 존대법과 유사한 언어학적 문제들을 인지하고 존대법으로 번역하기 위해 원천 본문을 분석하기 위한 중추 요소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역동적 동등성과 마찬가지로 기능 동등성은 원천 본문과 대상 본문 간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여전히 원천, 메시지, 수용자만이 번역 요소로 소개되기 때문에 존대법 번역을 위한 적절한 틀을 세우는 데 충분하지 않다. 또한 성경 번역자들이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본문의 풍부함과 다차원성을 희생했다”²⁸⁾고 비판해 왔던 것처럼 다양하고 다채로운 존대어 선택을 위한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2.4.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과 존대법 번역

번역을 위한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은 “성경 문헌들의 문체적이고 수사학적인 특징들”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학 기능 동등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윈들랜드(E. R. Wendland)에 따르면,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은 기능 동등성 접근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²⁹⁾ 원천 본문의 분석과 번역에서 문체적이고 수사학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동등성 이론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문체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은 역동적 동등성 이론의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난다.³⁰⁾

그러나 문학 기능 동등성과 그 이전의 동등성 이론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다른 동등성 이론들은 확일적으로, 저자나 번역자가 번역을 책임지고 청중(audience)은 번역 과정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반면에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은 청중이 “그들의 기대, 가치, 개념, 선입견, 경험, 견해, 인식 틀, 그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반응하는 메시지에 크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본문에 가져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¹⁾ 그와 동시에 문학적인 번역이 원천 본문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언어의 수사학적 관례

26) Ibid., 12-13.

27) Ibid., 50.

28) Simon Crisp, “Challenges for Bible Translation Today”, 204.

29) E. R. Wendland, “A Literary (Artistic-Rhetorical)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with special reference to Paul’s letter to Philemon”, *JBTR* 16 (2003), 180.

30) E.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45.

31) Ibid., 26.

를 따라야 하는 제한과 경계가 있다.

또한 문학 기능 동등성은 다른 동등성 이론들과 호환되지 않는다. 직역, 즉 형식 일치 번역이 형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면,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은 내용, 기능 동등성 접근법은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은 이 동등성 이론들의 통합적 틀(*framework*)이다.³²⁾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접근법은 번역의 문학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배 성경 번역을 위한 번역 접근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³³⁾ 다만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의 중요한 특징들을 존대법을 번역하기 위한 분석적 기준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

첫째,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은 언어학적이고 문학적인 통합체의 견지에서 본문을 바라보는 “담화 중심적, 장르 중심적인 견해”를 강조한다.³⁴⁾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원천 본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화와 장르의 문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에 있어서 수사학적인 강조는 문법적 규칙들을 넘어 존대법 번역에 영향을 준다.

둘째,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이 강조하는 일관성은 본문 연관성의 의미론적이고 화용론적인 측면에 적용된다.³⁵⁾ 대화자간의 심리적인 급격한 변화를 다루거나 시와 같은 특별한 장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대화자들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존대와 비존대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대화자들 간에 대화의 일관성이 없다면, 번역자는 독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본문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의 일관성 강조는 성경의 문학적인 번역에 유용할 뿐 아니라 존대법 번역을 위해서도 유용하다.

셋째,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의 구두 문체 분석은 의미론적 내용과 화용론적인 의도와 연결이 된다.³⁶⁾ 이 접근법은 담화 생성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대인관계 상황과 연결되는 “형식-내용-기능 번역 연속체”의 화용론적 목적에 주목한다.³⁷⁾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은 ‘화용론’(pragmat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 이전의 동등성 이론들과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이 화용론을 다룬 것은 존대법 번역을 위하여 원천 본문을 분석하고 대상 본문에서 존대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다른 현대 번역 이론들처럼,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은 통합적인 틀로서 계속

32) Ibid., 82.

33) Ibid., 96.

34) E. R. Wendland, “A Literary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228.

35) Ibid., 183.

36) E.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10.

37) Ibid., 191.

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존대법 번역을 위하여 원천 본문을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효과적인 기준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완성된 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동등성 접근법들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현대 번역 이론들 중에서 통합적 이론인 스코포스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2.5. 스코포스 이론과 존대법 번역

1980년대 이후, 스코포스 이론은 문화인류학적 언어학, 사회언어학, 화용론, 비평적인 담화 분석과 문화 이론을 강조하는 현대 번역 이론으로 등장하였다.³⁸⁾ 번역의 쌍방적인 역동성과 화용론적 목적을 강조하는 스코포스 이론은 1980년 초기에 레이즈(K. Reiss)와 베르메르(H. J. Vermeer)가 번역학으로 소개하였고 최근에는 노드(C. Nord)에서 의해서 발전되었다.³⁹⁾

초기 스코포스 이론은 원천 본문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번역 과정, 대상 본문과 번역자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코포스 이론의 이러한 특징은, 원천 본문의 권위를 무시하고, 새로운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원천 본문보다 번역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또한 번역자가 좋아하거나, 번역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주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평에 대해 노드는 “기능에 더한 충실 모델”(the function-plus-loyalty model)을 제시한다.⁴⁰⁾ 원천 본문에 대한 ‘충실’은 대상 본문의 목적이 본래 저자의 의도와 양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성경 본문과 같이 특별한 원천 본문을

38) J. A. Naudé, “An Over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Translation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ion”, Naudé and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46; B. Hatim and I. Mason,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New York: Longman, 1990), xi, 8; M.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8), 279; P. C. Stine, ed., *Bible Translation and the Spread of the Church: the Last 200 years* (Leiden; New York: E. J. Brill, 1990), vii; A. O. Mojola, “Bible Translation in Africa. What Implications Does the New UBS Perspective Have for Africa? An Overview in the Light of the Emerging New UBS Translation Initiative”, Naudé and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210.

39) H. J. Vermeer, “Übersetzen als kultureller Transfer”, H. Snell-Hornby, ed., *Übersetzungswissenschaft-eine Neuorientierung* (Tübingen: Francke Verlag, 1986); C.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C. Nord,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 Rodopi, 1991).

40) 노드에 따르면, 그 기능은 “의도된 대상 본문의 상황에서 대상 본문을 만드는 요소들”을 언급하고, 충실은 “번역자, 원천 본문 제공자, 대상 본문 수용자, 발기인 간의 상호관계”를 언급한다 (C.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126).

위해서는, 대상 본문의 기능들이 제한되고 잘못된 번역들의 가능성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원천 본문과 대상 본문 쌍방을 향해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이렇게 스코포스 이론의 공헌은 번역의 방법과 문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초점을 원천 본문에서 대상 본문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 있다.

스코포스 이론은 “어떤 목적이 존재하고, 그 주어진 목적은 많은 가능성들 중 오로지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번역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⁴²⁾ 이러한 개념은 원천으로부터 수용자로 동등하게 전환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존의 동등성 도관 구조와 다르다. 기존의 동등성 접근법들에서, 대상 본문은 원천 본문과 가능한 한 가깝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스코포스 이론에서는 다양한 대상 본문들이 일련의 목적들에 따라 원천 본문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⁴³⁾ 독자들은 그들의 경험, 사고, 흥미, 필요 등과 함께 그들의 언어의 렌즈를 통해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이다.⁴⁴⁾

스코포스 이론을 성경 번역에 적용했던 드 프리스(L. de Vries)는 “원천 본문은 그 가능한 번역들을 잠정적으로 결정한다”고 지적한다.⁴⁵⁾ 번역을 할 때마다 성경 번역자들은 언제나 “선택과 잠정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⁴⁶⁾ 존대법 번역을 하는 성경 번역자들도 항상 다양한 존대 등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존대법 번역과 관계된 문제의 해결책은 “공동체를 위한 개념인 ‘성경’을 정의하는 데 있으며, 공동체의 구체적인 영성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요소들”에 있다.⁴⁷⁾ 이처럼, 성경을 존대법으로 번역하는 것은 대상 언어로서의 존대법을 사용하는 독자들의 요구에서 시작한다.

로빈슨(D. Robinson)은 스코포스 이론이 “사람들, 저자들, 번역위원들, 용어 전문가들, 다른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⁴⁸⁾ 노드 또한 발기인으로서 의뢰인, 원천 본문 저자, 대상 본문 독자를 말한다.⁴⁹⁾ 그리고 하팀(B.

41) C.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125.

42) 주어진 원천 본문이 의미나 혹은 수사적 기능을 청중들에게 전환시킬 때마다 하나의 올바른 혹은 최고의 번역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H. J. Vermeer,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0], 228).

43) C.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31; B. Hatim,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13.

44) T. Wilt, *Bible Translation: Frame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8.

45) L. de Vries, “Paratext and the Skopos of Bible translations”, W. F. Smelik, A. A. den Hollander, and U. B. Schmidt, eds., *Paratext and Megatext as Channels of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oston: Brill Publishers, 2003), 176-193.

46) L. de Vries, “Paratext and the Skopos of Bible translations”, 177.

47) L. de Vries,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Skopos of Bible Translations: the Case of the Dutch Statenvertaling”, TTW 2003 paper, 1.

48) D. Robinson, *Becoming a Translator*, 192.

Hatim)은 번역이 저자, 번역자, 번역의 독자 간에 상호작용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이처럼, 동등성 이론들보다는 스코포스 이론은 더 다양한 번역 요소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번역 요소들로부터 존대법 번역의 통합적인 틀로 독자, 위원회, 번역자, 원천 본문, 대상 본문이라는 요소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

3. 존대법 번역을 위한 요소들

3.1. 독자들의 요구

번역의 성공이나 실패는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번역된 본문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대상 본문의 출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천 본문 저자의 의도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성경 번역에서, “독자의 의도”는 “공동체의 의도”, 즉 과거의 독자 공동체와 현재의 독자 공동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⁵¹⁾ 따라서 번역 원리들을 세우기 전에 정확한 독자나 독자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들에 대하여, 나이다와 태보는 번역을 위한 대상 언어로서 “죽어가는 세대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언어”를 강조한다.⁵²⁾ 성경은 “일상어”로 번역되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다와 태보는 “25세부터 35세까지”의 사람들의 언어에 초점을 맞추었다.⁵³⁾ 그러나 예배용 성경을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예배용으로서의 의사소통이다.

종교적 문체는 단지 이해하기 쉬운 것보다는 장엄하고 경건한 느낌을 자아낼 만한 것이어야 독자들에게 심미적으로 더 다가간다. 예배용으로 고어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용 성경 번역을 위하여 언어 등급이나 문체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번역 문체에 대하여 “너무 문어체이거나 너무 문어체이지 않거나, 너무 학문적이거나 너무 학문적이지 않거나, 혹은 너무 구어체이거나 너무 구어체이지 않거나, 너무 교회적이거나 너무 교회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⁵⁴⁾ 실제로 성경 문체는 “다소 규범적이거나 관습적인 문체, 사

49) C. Nord,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6.

50) B. Hatim,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32.

51) P. A. Noss, “Dynamic and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Gbaya Bible”, *Notes on Translation* 11:3 (1997), 22.

52) E. A. Nida and C.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125.

53) *Ibid.*, 182.

54) W. A. Smalley, *Translation as Mission*, 170.

라져 가고 있는 말, 안 쓰는 말”을 포함한다.⁵⁵⁾ 따라서 존대법을 사용하는 번역자는 현대 독자들이 사용하는 그 시대의 구어체 존대법 구조 뿐 아니라 종교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존대법 구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⁵⁶⁾

또한 존대법 번역은 나이, 사회적 직위, 성별, 친밀감 등과 같은 사회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예상 독자가 7세 이하의 어린이라면, 대상 본문은 모든 존대법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한된 존대법만을 포함해야 한다. 존대법으로 번역하는 것은 독자들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특히, 번역의 목적이 교회 낭독용인지, 가정용 성경인지, 성경공부용인지, 연구용인지 등에 따라 그 번역이 달라지는 것이다.

3.2. 번역 기관의 역할

드 프리스(de Vries)는 “번역 기관이 번역에 있어서 확실한 목적(의도된 스포코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번역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공동체 또한 번역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다(기대되는 스포코스)”는 점을 강조한다.⁵⁷⁾ 의도되고 기대되는 스포코스를 고려하면, 번역 기관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번역 원칙들과 지침들의 확실한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⁵⁸⁾ 번역의 형식과 문체와 같은 요소들은 번역자들 개인의 문체 특징이라기보다는 번역 정책, 이데올로기적 관심, 교리적 문제, 정책적 결정 등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⁵⁹⁾ 그러므로 번역 기관은 번역자가 다양한 존대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지침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번역 정책은 대상 본문의 스포코스에 따라 독자 공동체의 자문과 동의의 통하여 세워진다. “예배를 위한 기능, 연구 기능, 일상어 기능, 세속적 문학-문화 기능, 개인 읽기나 가정용 기능이다.”⁶⁰⁾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하기 위하

55) E. R. Wendland, *Language, Society and Bible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yle and structure of segments of direct speech in the Scriptures*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5), 54.

56) 적어도 두 가지 역본을 출판하기 위한 양자택일 계획이 항상 공존한다. 기독교 교회를 위한 예배용 성경과 일상어 번역본이다. 하나의 번역이 원천 본문의 모든 측면을 결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번역은 항상 원천 본문의 어떤 측면을 항상 선택하고, 번역의 스포코스는 번역의 여과기(필터)의 본질을 결정한다(Cf. de Vries, “Bible Translations: Forms and Functions”, 307).

57) L. de Vries,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skopos of Bible translations”, 2.

58) 실제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에서는 개정 지침 및 다양한 번역 지침서들과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성경을 번역하거나 개정하는 전세계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있다.

59) B. Hatim,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69.

60) L. de Vries, “Paratext and the Skopos of Bible translations”, 178.

여, 번역 정책과 원칙의 결정은 독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적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는 사회언어학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존대법 선택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회적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번역 기관이 정한 번역 원칙이 무엇이건, 직역이건, 자유역이건, 역동적 동등성이건, 기능 동등성이건, 문학 기능 동등성이건, 번역 기관은 독자 공동체의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번역 정책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번역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번역된 본문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되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존대법을 포함하고 있다면, 독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번역 기관은 확실한 번역 목적, 즉 스코포스를 정함으로써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할 뿐 아니라, 번역자들과 번역 컨설턴트들이 번역 원칙을 이해하고 함께 번역들을 점검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⁶¹⁾ 번역 프로젝트가 끝난 후, 번역 기관은 예상 독자들에게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판을 보급하여 감수를 받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3.3. 번역자의 역할

번역자의 주요 역할은 번역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번역자가 독자에 대하여 부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번역된 본문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독자의 사회 문화적 기대와 번역 기관의 조직은 번역자가 번역을 할 때 번역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 번역 기관, 번역자, 원천 본문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번역자는 독자 공동체와 번역 기관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소속된 사람일 뿐 아니라, 최종 독자보다 먼저 원천 본문을 접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원천 본문과 대상 본문 간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 때문에, 번역자는 원천 본문에서 같은 분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⁶²⁾ 그러나 원천 본문의 해석은 대상 본문의 형식이나 문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⁶³⁾ 번역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 본문으로부터 어떤 문체를 선택하고, 그 정보에 따라 대상 본문에서 적절한 존대법을 결정한다.

적절한 존대법 번역을 위하여, 번역자는 원천 본문에서 사회적 요소들과 사회 상황, 대화자 간의 문화적 기대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번역자는

61) M. Watt, "Redefining 'Dynamic Equivalence'", *Notes on Translation* 10:1 (1996), 18.

62) L. de Vries, "Bible Translations: Forms and Functions", 306-319.

63) H. J. Vermeer, "Übersetzen als kultureller Transfer", 276 재인용;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21.

대화자 간의 사회적 변수로서 대화에 있어서의 지배력, 거리, 계급을 인식할 수 있고, 대상 본문을 적절한 존대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원천 본문 본래 저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문체로 구성된 번역 본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3.4. 원천 본문의 분석

원천 본문에는 존대법과 같은 언어 구조나 문법적 형태소가 없기 때문에, 번역자가 원천 본문에 대하여 화용론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 비존대어인 성경 언어를 적절한 존대법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손 이론들로부터 끌어온 화용론적 기준들과 틀은 원천 본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화용론적 분석을 통하여, 대화자 간의 사회적 관계, 사회 상황의 공식성, 대화에 대한 문화적 기대가 인식될 수 있다. 원천 본문을 분석하면서 파악된 바는 성서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자아 중심 사회(egocentric society)인지, 사회 중심 사회(sociocentric society)인지, 나이 중심 사회(age-centric society)인지, 계층적 사회인지, 가부장적 사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번역자들의 사회, 문화와 원천 본문의 사회, 문화와는 시대적 차이가 있고, 성경과 고대 문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성서 주석, 성서 해석학, 사회언어학적 요소들을 통하여, 번역자들은 사회적 요소들뿐 아니라 원천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의사소통 의도를 꿰뚫어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변수, 즉 대화에 있어서의 지배력, 거리, 계급과, 말하는 이의 의도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통합적 과정을 통하여, 원천 본문의 분석 결과는 대상 본문의 존대법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도된 독자들과의 언어 사용 능력과 이해 능력, 요구 사항들이 존대법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천 본문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이 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 과정 후에도 원천 본문의 분석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존대법 번역 가능성이 남는다면, 그것은 번역자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3.5. 대상 본문의 기능

번역자가 적절한 존대법 결정으로 인해 겪는 딜레마를 모두 해결한 후, 대상 본문에서는 번역자의 마지막 결정만이 나타난다. 번역된 본문의 자율성은 독자들에게 의해 재정의된다. 따라서 대상 본문은 원천 본문과 정확히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없으며, 정확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원천 본문의 일부는 대상 본문에서 어

절 수 없이 손실된다.⁶⁴⁾ 번역된 본문의 기능은 독자 공동체의 필요와 독자들의 상황, 교회, 가정, 학교, 선교지 등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상 본문이 독자들의 상황과 언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천 본문만을 고려하여 번역된다면, 원천 본문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면서 모든 등급의 존대법을 사용한다거나,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번역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옛스러운 문체를 사용한다면, 대상 본문은 더 이상 원천 본문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대상 본문은 원천 본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잘 전달할 뿐 아니라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독자들에게 잘 읽혀져야 하는 것이다. 대상 본문은 독자들의 사회 상황과 문화적 상황의 견지에서 궁극적으로 평가된다.

4. 존대법 번역을 위한 틀

존대법이 없는 원천 본문을 존대법이 있는 대상 본문으로 번역하기 위한 틀은 앞서 말한 번역 요소들로 구성된다. 번역 기관과 번역자가 누구를 위하여 번역할지를 결정한 후, 적절한 존대법 번역을 위하여 번역 정책이나 번역 원칙들을 세운다. 독자는 그 본문이 출판된 후에 그것을 읽게 될 개인이나 그룹, 기관, 교회이다. 번역 기관은 의도된 목적(스코포스)과 함께 독자의 필요를 감지한다. 번역자는 번역 기관과 효과적으로 상호협력을 함으로써 독자의 필요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의도된 스코포스와 함께, 번역자는 대화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 상황의 공식성, 대화에 있어서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문화적 기대들을 주석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그 분석은 형식 동등성이나 의미론적 접근, 혹은 기능 동등성보다는 원천 본문에서 언어의 화용론적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사회적 변수들, 즉 대화에 있어서의 지배력, 거리, 계급인 사회적 변수와 말하는 이의 의도로 인식되어 화용론적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인식된 사회적 변수들은 번역 목적(skopos)에 따라 대상 본문에서 존대법으로 재구성된다.

번역자가 만나게 되는 문제는 독자, 번역 기관, 번역자, 대상 본문의 존대법 구조가 원천 본문의 비존대법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첫 번째 독자로서 원천 본문을 화용론적으로 분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존대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번역자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존대법에서 하나의 존대어나 비존대어를 선택할 때

64) C.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31.

마다, 나머지 존대법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서 잃게 되는 부분이 항상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하기 위한 이러한 통합적 틀은 전체적으로 스코포스 이론에 기대어 있다. 그러나 번역의 요소들은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의 번역 단계와, 기능 동등성과 문학 기능 동등성의 화용론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각각의 요소들은 일관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상 본문의 목적(스코포스)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예배용 성경을 위한 존대법 번역을 위해서, 성경이 기독교 공동체들에서 정경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장중한 문체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현대적인 자연스러운 문체 간에는 항상 긴장이 있다. 결국 대상 본문에서 존대법 선택은 독자 공동체를 고려하는 번역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 통합적 틀은 구체적인 스코포스와 함께 번역 정책을 세우는 번역 기관을 위하여 유용하고, 특히, 화용론적 견지에서 원천 본문을 분석하는 번역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적절한 존대법으로 번역하기 위한 번역 요소들과 틀을 제안하기 위하여, 직역,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 기능 동등성 접근법,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 스코포스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직역은 존대법이 없는 원천 언어를 글자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서 획일적인 등급의 존대어 혹은 비존대어를 선택하게 되면 원문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존대법 번역을 위한 적절한 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은 존대법 번역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유용하지만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 번역 요소들인 원천(source), 메시지(message), 수용자(receptor)는 존대법 번역을 위해 충분하지 않고, 번역자 홀로 존대법 결정의 전체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동등성 접근법에서는 존대법이 없는 원천 본문이 번역의 이론적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 이론적 틀이 되기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동등성 접근법의 핵심 요소인 분석, 전환, 재구성은 존대법 번역 위한 틀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기능 동등성 접근법도 담화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내도록 하는 데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었으며, 문학 기능 동등성 접근법 또한 그 전의 동등성 접근법들과 같은 선상에서 충분한 틀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 기능 동등성의 분석적 기준들인 담화 중심, 장르에 근거한 인식, 일관성, 화용론적 의도는 적절한 존대

법 번역을 위한 접근법을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

스코포스 이론은 적절한 존대법 번역을 위한 틀을 세우는 데 유용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스코포스 이론은 화용론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 이전의 동등성 접근법들의 이론적 틀을 보완한다. 스코포스 이론의 다양한 번역 요소들을 끌어들이, 존대법 번역을 위한 통합적 틀을 세우는 요소들로 독자, 번역 기관, 번역자, 원천 본문, 대상 본문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틀의 시작점은 독자 공동체의 언어 이해 능력, 번역에 대한 요구와 필요이다. 이에 대해 번역 기관과 번역자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고, 원천 본문을 화용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등급의 존대법들 중에서, 번역자는 원천 본문의 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고 예상 독자의 요구와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절한 존대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론적 틀을 세울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존대법 번역, 직역, 역동적 동등성, 기능 동등성, 문학 기능 동등성, 스코포스 이론.

translating into honorifics, literal translation, dynamic equivalence, functional equivalence,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skopos theory.

(투고 일자: 2009. 8. 20, 심사 일자: 2009. 9. 14, 게재 확정 일자: 2009. 9. 14.)

<참고문헌>(References)

- Baker, M.,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8.
- Beekman, J., and Callow, J.,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ers, 1974.
- Cho, Ji-Youn, “Politeness and Korean Addressee Honorifics in Jesus’ Reply, Ἐγὼ εἶμι, καὶ ὄψεσθε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 *The Bible Translator* 59:1 (2008), 26-38.
- Crisp, Simon, “Challenges for Bible Translation Today”, 「성경원문연구」 24 (2009), 201-213.
- de Vries, L., “Paratext and the Skopos of Bible translations”, W. F. Smelik, A. A. den Hollander, and U. B. Schmidt, eds., *Paratext and Megatext as Channels of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oston: Brill Publishers, 2003, 176-193.
- de Vries, L.,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Skopos of Bible Translations: the Case of the Dutch Statenvertaling”, TTW 2003 paper.
- de Waard, J. and Nida, E. 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 Ellingworth, P., ““You Can Say You to Him’: T- and V- forms in common language translations of the New Testament”, *The Bible Translator* 53:1 (2002), 143-153.
- Hatim, B. and Mason, I.,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New York: Longman, 1990.
- Hatim, B.,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Edinburgh Gate: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 Hatton, H. A., “Translation of Pronouns: A Thai Example”, *The Bible Translator* 24:2 (1973), 222-234.
- Hatton, H. A., “Thai Pronouns Revised”, *The Bible Translator* 30:4 (1979), 415-418.
- Jordaan, G. J. C., “Problems i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Functional Equivalence Approach”, J. A. Naudé & C. H. J.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Bloemfontein: The University of the Orange Free

- State, 2002, 19-29.
- Joubert, S. J., “No Culture Shock? Addressing the Achilles Heel of Modern Bible Translations”, Naudé &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Bloemfontein: The University of the Orange Free State, 2002, 30-43.
- Larson, M. L., *Meaning-based Translation: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 Min, Young-Jin & Cho, Ji-Youn, “Korean Translation of the Greek Personal Pronoun σου in the Lord’s Prayer”, 「성경원문연구」 17 (2005), 133-147.
- Mojola, A. O., “Bible Translation in Africa. What Implications Does the New UBS Perspective Have for Africa? An Overview in the Light of the Emerging New UBS Translation Initiative”, Naudé and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Bloemfontein: The University of the Orange Free State, 2002, 202-213.
- Naudé, J. A., “An Over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Translation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ion”, Naudé and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Bloemfontein: The University of the Orange Free State, 2002, 44-69.
- Nida, E. A., and Taber, C.,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rill: Leiden, 1969.
-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a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 Nord, C.,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 Rodopi, 1991.
- Nord, C.,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 Noss, P. A., “Dynamic and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Gbaya Bible”, *Notes on Translation* 11:3 (1997), 24-29.
- Robinson, D., “The Skopos Theory”, M.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8, 166-167.
- Ross, L. R., “Mark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Today’s Spanish Version’”, *The Bible Translator* 44:2 (1993), 217-231.
- Shae, G. S., “The Portrait of Jesus in the Burmese Gospels”, *The Bible Translator* 53:2 (2002), 202-210.
- Smalley, W. A., *Translation as Mission*, Mas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1.
- Soesilo, D. H., “Sir, Teacher, Master, Lord”, *The Bible Translator* 47:3 (1996), 335-340.
- Stine, P. C., ed., *Bible Translation and the Spread of the Church: the Last 200 years*, Leiden; New York: E. J. Brill, 1990.
- Vermer, H. J., “Übersetzen als kultureller Transfer”, H. Snell-Hornby, ed., *Übersetzungswissenschaft-eine Neuorientierung*, Tübingen: Francke Verlag, 1986.
- Vermeer, H. J.,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0, 221-232.
- Watt, M., “Redefining ‘Dynamic Equivalence’”, *Notes on Translation* 10:1 (1996), 16-19.
- Wendland, E. R., “A Literary (Artistic-Rhetorical)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with special reference to Paul’s letter to Philemon”, 「성경원문연구」 16 (2003), 266-364.
- Wendland, E. R., *Language, Society and Bible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yle and structure of segments of direct speech in the Scriptures*, Cape Tow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1985.
- Wendland, E. R.,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 Wilt, T., *Bible Translation: Frame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abstract>

Approaches for Translating Bible into Honorifics

Dr. Ji-Youn Cho
(Korean Bible Society)

To propose elements and a framework for translating Bible into proper honorific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literal translation theory, dynamic equivalence, functional equivalence,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approaches, and the skopos theory. The literal translation approach which may have denotatively rendered the Greek text into a single honorific form, cannot provide an appropriate framework for translating into honorifics.

In terms of translating into honorifics, the model of dynamic equivalence approach presents the problems: (1) the translation elements, the source, message and receptor are not enough to determine the translating of a non-honorific language into the proper honorifics of honorific languages, (2) the translator alone takes total responsibility in determining the honorifics without specific information and the requirements of the ‘final receptor,’ and (3) the source text is the theoretical starting point for the translation. Nevertheless, it provides significant three-stages of translation, analysis, transfer, and restructuring, applicable to the framework for translating into honorifics.

The functional equivalence of the emphasis, i.e., the rhetorical structure of text is useful in being aware of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discourse, but does not suggest a proper whole framework for translating into honorifics. A 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 cannot also provide a sufficient framework for translating into the target text, although the main characteristics, i.e., the analytical criteria, the discourse-central, genre-based perspective, coherence, and pragmatic intent are partly useful to establish a method for translating into honorifics.

The skopos theory suggests a suitable framework for translating into honorifics. In the skopos theory, the integrated framework for translating

into honorifics can be formulated with the following elements: (1) reader, (2) commissioner, (3) translator, (4) source text, and (5) target text. Translation into honorifics is determined by the linguistic competence, requirement, needs, and theological aspect of the final readers' community. The commissioner and the translator must ge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about the readers and pragmatically analyze the source text as the first reader.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translator will be able to realize power, distance, rank and speaker's intention as social variables, and transfer it pragmatically to the target text with the appropriate honorifics. However, the final selection of honorifics in the target text is determined by the translator who considers the readers' community insofar as being consistent with the analysis of the source text.